

조계종-국립중앙박물관 법리 해석 맞대응

문화재 보호법 vs 보관 권리



3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열린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내옥 유물관리부장(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박물관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장 허락을 얻지 않고 해당 유물에 대해 보존처리와 공개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사가 위탁한 문화재가 아니다"며 "불국사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문화재청의 결정 후 필요하다면 40여 년간 해당 유물을 보관해 온 기관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반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조계종-“허락없이 유물 형상 변경 등 법 위반” 국박-“40여 년간 보관해 온 기관 법적 권한 있다”

은 반환을 거부할 권한이 없음에도 반환 불가 입장을 조계종에 통보한 것 역시 부당한 행정권한 행사라고 조계종은 지적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28일 '석가탑 유물관련 종합경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보존처리가 아닌 예비단계의 조치일 뿐이므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목서지편(墨書紙片) 등으로 쓴 종이문체를 낱장으로 분리한 것은 응급조치일 뿐 물리적·화학적 변화가 없었으므로 보존처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석가탑 출토유물'은 1967년 당시 문교부장관의 '문화재 이관명령'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불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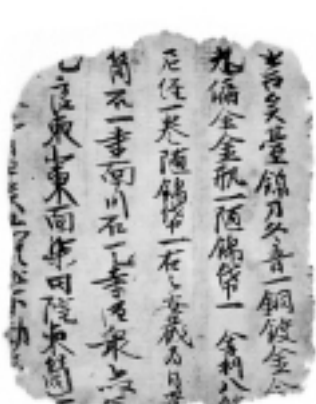
사기 위탁한 문화재가 아니다"며 "불국사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문화재청의 결정 후 필요하다면 40여 년간 해당 유물을 보관해 온 기관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반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여수령 기자



석가탑(국보 제21호)

안승준 연구원이 해독한 바에 따르면, 석가탑은 신라 경덕왕 1년(741)에 개창해 혜공왕 대(765-780)에 완성됐으며, 285년이 지난 뒤 중수했다. 탑의 해체 수리를 현종 15년(1024년)에 시작돼 사리함과 무구정광대다리니경을 다시 안장했다. 또한 중수기에는 불국사에 주석하는 많은 스님들이 중수를 위해 공양한 물품 목록과 중수할 때의 날씨, 먹은 음식 등을 기록한 '중수 일기'가 덧붙여져 있다. 여수령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이 3월 9일 공개한 '1024년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 일부.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유물의 현상을 변경하고 공개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조계종) “우리가 취한 조치는 유물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 예비단계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해당 유물을 40여 년간 보관해 온 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국립중앙박물관) 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 반환을 둘러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의 의견대립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3월 27일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 반환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정권을 행사하고, 소유주와 문화재

“다라니경 신라때 제작”

안승준 연구원 “중수 시 재안치” 고려 제작설 일축

‘불국사석가탑중수기’ 공개 촉구

조계종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유권 논란의 한 편에서는 석가탑 내 출토유물(국보 제126호) 중 목서지편(墨書紙片)과 비단에 쌓인 지류문치의 ‘연구’가 학계·언론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목서지편은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과 함께 발견된 것으로, 여러 문서

들이 한데 뭉쳐있어 그동안 판독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목서지편을 촬영하고 판독한 후 3월 9일 “110여 쪽에 이르는 목서지편은 >보현인다라니경 >1024년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 >1038년 불국사석가탑중수행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보시명공중승소명기(布施名公衆僧小名記) 등 최소 4종으로 구성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 사진 3장과 판독본 전문도 공개했다. 한 언론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중수기 내용을 두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세계 최고(最古)의 인쇄물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더욱 논란이 확대됐다. 그러나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3월 24일 열린 신라사학회에서 “중수기의 전후 문맥상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신라시대에 제작되어 석가탑에 안치된 것으로, 석가탑 해체 보수 시 다시 넣은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3월 2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신라 특유의 서체와 종이 가공법, 섬유의 치밀도 등을 분석해 볼 때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제작 연대는 신라시대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림사, 산림법회 60주년...기념세미나

매회 1000여명 자비법문 경청

산림(山林). 산림은 사찰에서 일정한 날을 정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해 듣고 바른 이치를 알아 공덕을 닦는 자리다. 부산 도심에서 60년간 산림법회를 이어온 사람이 있다. 소림사주지 혜전사는 1948년부터 매년 음력 2월 초하루부터 일주일간 산림법회를 봉행해왔다. 금광스님의 화엄산림(1948-57), 광우스님의 법화산림(58-67), 철우스님의 열반산림(68-77) 등 60년간 180여명의 법사 스님이 법을 설했다. 매 법회 평균 1000여명의 대중들이 법문을 듣고 자비도량잠법이라는 대중기도를 해왔다. 소림사가 산림법회 60주년을 맞아

지난 산림법회를 정리하고 부산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기위해 4월 7일 오후2시 소림사 무량수전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종립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의 불교'라는 기초발표를 시작으로 김경집 교수(동국대) '한국불교 산림법회의 이해'를,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소림사 산림법회의 포교적 의미와 활동 분석'을 각각 발표한다. 소림사는 행사 당일 15명의 큰스님의 법문을 모은 산림법회 법문집을 보시할 계획이다. (051)468-4497 남동우 기자

“불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

월정사 어린이 단기출가학교 개설, 5월 23일-26일

단기출가학교로 새로운 신행문화를 개척한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이번엔 어린이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한다. 어린이 단기출가학교는 미안마 단기출가제도인 신류의식을 본뜬 것. 미안마 남성이었던 누구나 9-12세 사이에 단기간 출가를 하는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간주된다. 이때 어린이들은 부모, 친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타마 싯다르타가 왕위를 버리고 불가에 입문하는 모습을 재연한다.

어린이들은 고타마 싯다르타 복장을 하고 전나무 숲에서 월정사로 들어온다. 이어 탑돌이를 세 번 하고 부모님이나 친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석발을 한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20명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시청과 교재를 통해 부처님일대기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발우공양이나 참선도 필수코스.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호국팔만대장경대법회’

합천 해인사주지 현웅가 4월 14일 오전 10시 ‘2007호국팔만대장경대법회(이하 대장경법회)’를 봉행한다. 대장경법회는 매년 봉행되던 ‘팔만대장경경대법회’의 이름을 새롭게 바꾼 것이다. 일정도 주5일 근무시대에 맞춰 매년 음력 3월 9·10일 양일간 봉행했던 것을 매년 양력 4월 둘째 주 토요일로 변경했다. 대장경법회는 ‘국운이 융창하여 남북통일이 이루어지이다’와 ‘부처님 가르침 널리 밝혀져 온 누리에 펼쳐지이다’를 주제로 봉행된다. 법회에서 참석자들은 ‘팔만대장경’ 정신이 온 누리에 널리 펼쳐져 나라가 태평하고 국운이 융창해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기원한다. 대장경법회의 절정은 참가자 전원 이 대장경 경판을 머리에 이고 행진하는 모습. 참가자들은 ‘국운융창, 남북

통일, 법륜상전’을 발원하며 대적광전(큰 법당)→대장경관전→해인도를 따라 행진한다. 남동우 기자

광주 원각사 삼존불 점안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주지 도제는 대웅전 삼존불 점안을 기념해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구산 스님 제자 초청대법회’를 개최한다. 4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8일 현웅 스님(미국 버클리 육조사 주지) 15일 현봉 스님(前 송광사 주지) 22일 현고 스님(광주 원각사 회주) 29일 현장 스님(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 5월 6일 현지 스님(광주 원효사 주지) 5월 13일 현호 스님(서울 법련사 회주)이 각각 법문한다. 5월 20일 오전 8시 열리는 삼존불 점안식에는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이 초청법사로 참석한다. (062)223-3168 여수령 기자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율원 교수사 초빙 및 올원생 모집

고불총림 고불율원은 조선시대 대은, 금단, 초의스님을 비롯 근대 만암, 서용스님에 이르는 계승 정신으로 율맥이 깃든 청류암에서 30년간 백양강원을 주석한 율주 동성 해륜스님의 고경조심(古鏡照心), 소욕지족(少欲知足), 지계정정(持戒淸淨)의 원훈아래 부처님의 지고지순한 행과 불법을 널리 선양 계율연구에 매진하며 고불율맥을 계승할 올원생을 모집합니다.

◆ 교수사 초빙 : 0명 ◆

● 올원생 모집

- ◆ 응시 자격 : 기본교육 졸업자 및 예정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 ◆ 모집인원 : 0명
- ◆ 교과목 : 사분율, 비니관요, 범망경 외
- ◆ 제출서류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기본 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 사진(반명함) 2매 - 승려증 사본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 : 백양사 고불율원(청류암) ☎ 061)392-7506

고불총림 백양사 고불율원장 혜권

고불총림 백양사 강원 학인스님 모집

불기 2551년(서기 2007년) 신입 - 편입 학인스님 방부를 받습니다.

- ◆ 모집인원 및 대상 : 신입생(지문반) 00명, 편입생(사집, 사교, 대교) 0명
- ◆ 모집기간 : 신입생(1차) 2007년 3월 31일까지, 신입생(2차) 2007년 4월 3일까지 (32기 행자교육수료자) 편입생 2007년 3월 31일까지
- ◆ 구비서류 : 행자교육 필증, 수계증 사본 각1부, 은사님 추천서 1부, 건강진단서 1부(32기 행자수료자 제외), 사진(3x4) 3장, 수료증 사본 및 수행기록부 1부(편입생만 해당) (입방비 20만원)
- ◆ 입학특전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규 4년제 지원(사집만 이상)
- ◆ 문의처 : 강원(지객스님) 061)392-7324 / 중무소 061)392-7502

불기 2551년 3월 일

백양사 승가대학 강주 법광